

익산시, 감염 차단 올인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강도 높은 방역체계 구축 확진자 추가, 누적 86명...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29일 4명에 이어 이날 오전 1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86명으로 늘었다.

82번(전북 319번)과 83번(전북 320번) 확진자는 77번(전북 305번) 사무실 동료들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84번(전북 328번) 확진자는 지난 주말 익산 부모님댁에 머물다가 고열 증상

으로 검사를 실시해 확진됐다.

85번(전북 331번)은 83번(전북 320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86번(전북 336번)은 감염경로가 불확실해 GIS 등을 통해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확산 차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유흥 단란주점, 골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 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밤 9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전 직원이 동원돼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PC방과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이날 기준 자가격리자는 모두 685명으로 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담 공무원이 하루 2회 전화, 수시 현장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우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망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과 이동 자제는 물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융복합 사업 특화품목 후보군으로 군산 '주박 장아찌'가 선정됐다.



‘군산 주박 장아찌’ 지역특화품목 선정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융복합 사업 특화품목 후보군으로 '주박 장아찌'가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촌 융복합 사업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후보군 선정 사업'은 지역 단위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역 특화산업 후보군을 발

굴해 지역 경제의 활력과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는 사업이다.

시는 녹색농산물, 바삭, 흰찰쌀보리 에 이어 이번에 주박장아찌를 추가로 지정했다. 주박 장아찌의 주재료는 울외이며, 군산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헌에 의하면 백제 시대부터 제조해 즐겨먹는 식품이다. 시 성산지역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서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 지역 특화품목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 상황이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군산시 주박장아찌가 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주박장아찌가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품질관리와 주박장아찌 관련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예산활동 막판 '담금질'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와 정부의 주요 인사를 찾아 그간 노력해왔던 시책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담금질에 나섰다.

정 시장은 국회 예산심의를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 중점사업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수홍(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익산을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막판 전략을 정리했다. 이어 윤준병(예결위 예결안조정소위원회 의원), 박수영(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국회사무처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기획재정부 강원구 경제부총리 비서실장을 찾아 사업반영을 호소했다.

시 국회의심단계 건의 사업은 환경노동사업, 문화관광사업, 국토교통사업, 농림식품사업 등 26건, 중점요구 규모는 총 900억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과 중요도 높은 사업을 가려 국회 막판 비제비터를 위해 집중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북의 환경 이미지 쇄신과 왕궁 특별관리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해 ▲왕궁현업조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총사업비 1,468억원)을 건의했다.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축사 매입비 278억원 전액이 반영되어 전북도민의 숙원을 풀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총 공사기간 10년, 총사업비 1,874억원에 이르는 익산시 초대형사업으로 완공 시 혁신적인 물류비 감소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남산~연무)사업을 오는 22년까지 마무리짓기 위한 공사비 72억5,000만원 반영을 요청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세아베스틸(대표이사 박준두)이 지난 30일 2,00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와 2,0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군산, 세아베스틸 꾸준한 지역사랑

총 4030만원 상당 성금품 기탁

해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남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한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올 겨울에도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박준두)은 지난달 30일 2,00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와 2,0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의 재원은 (주)세아베스틸 전 임직원의 급여 절전 및 희망 나눔 모금액으로 마련됐으며, 전달된 성금·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세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서현승 동

조합 위원장과 서한석 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속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아베스틸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기업으로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는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나눔 활동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올해에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세아베스틸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운동이 꾸준히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강임준 시장, 명신 군산공장 방문... 현안 과제 의견 나뉘

군산시가 군산형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달 30일 (주)명신 군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은 이태규 대표와 박호석 부사장 등, (주)명신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주)명신의 현재 진행상황 및 추진전략, 향후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군산형일자리 추진과 관련한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주축인 (주)명신 군산공장 방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차 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강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는 GM 군

산 시대 등으로 촉발된 고용위기 회복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전기차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등 최대의 판매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산시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명신 이태규 대표는 "가동 초반에는 SUV, 세단 등 전기차를 OEM 위탁 방식으로 생산하지만 주문자 요구에 맞춰 상용트럭 등과 같이 생산 차종을 다양하게 제공해 향후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점할 것이며 지역에 새롭게 뿌리를 완전히 내리는 효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코로나 내년 예산 확대... 울 대비 11% 증가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재정 운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1% 증가한 1조4,8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했다.

우선 익산사랑상품권을 312억원까지 확대해 민간 소비촉진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1억,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차보전 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원, 영세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1억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원 등을 지원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젊은층 밀집지 긴급방역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망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사흘 동안 젊은층 밀집지역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역 대상지는 신동과 모현동 영등동을 비롯해 추가 확진자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부송동과 금마면 일대 등 모두 5개 권역, 2,500여곳의 업체이다.

앞서 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21일부터 사흘 간 신동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영등, 모현동 일대 모든 음식점과 카페, 주점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